비교문화연구 제28집 1호 (2022), pp. 299~313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https://doi.org/10.17249/CCS.2022.6.28.1.311

감금된 여성에서 빚을 진 여성으로:

김주희, 2020, 『레이디 크레딧: 성매매, 금융의 얼굴을 하다』, 서울: 현실문화.

이승철*

"[통제사회에서] 인간(man)은 감금된 인간이 아니라 빚을 진 인간이 된다."(Deleuze, 1992: 6)

1. 들어가며

사회운동과 학술연구의 분리가 견고해지고 분과학문 간의 장벽이 높아져 가는 오늘날 학계에서, 실천과 학술 양자에 기여하는 동시에 다수의 학제 간에 의미있는 질문을 제기하는 책은 드물다. 김주희의 『레이디 크레딧: 성매매, 금융의 얼굴을 하다』(현실문화, 2020)은 그런 드문 책들 중 하나다. 성매매 산업을 둘러싼 "그간의 여성운동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성매매 문제를 금융화된 자본주의 시대의 여성 문제로 적극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시각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연구는(김주희, 2020: 35; 이하 쪽수만 표기함), 2020년 여름 출판된 이후 그 포부에 걸맞게 많은 학문적·대중적 관심을 받아왔고, 단기간에 성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매매 관련 활동가들과 여성주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자리잡은 것처럼 보인다.

이미 널리 읽히고 있으며 다수의 훌륭한 서평들이 쓰여진 마당에,[1] 이 뒤늦은 서평이 무슨 이야기를 보탤 수 있을까? 이 책의 서평 제안을 받고 한동안 망설였던 이유인데, 고심끝에 이 글은 이 책이 발걸치고 있는 또 다른 한 축, 즉 금융화된 부채경제의 분석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성매매, 금융의 얼굴을 하다"라는 책의 부제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책은 성매매와 금융이라는 두 영역의 만남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둘러싼 다수의 리뷰와 논의들이 주로 성매매 문제에 주목하면서 다른 한 축인 금융화된 부채경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책의 횡단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성매매 산업에 대한 논의와 금융에 대한 분석을 구분짓는 것은 자의적이며 심지어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 서평의 결론부에서 더 분명해지겠지만, 이 책의 핵심적 기여는 금융자본주의의 젠더화된 구조를 드러낸 것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서평은 그 젠더화된 구조에 조금 다른 출입구를 통해 접근해 볼 것이다.

2. 성매매의 부채관계: 소득과 부채의 대립구도를 넘어서

오늘날 금융화된 부채경제와 성매매는 어떻게 결합하는가? 저자가 이를 분석하기 위해 제안하는 '부채관계(debt nexus)'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우선 책의 주장을 간략히 살펴보자. 책의 1부에서 저자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와 그 경제적 기반을 둘러싼 여성주의 내 논의지형을 '소득' 대 '부채'의 대립으로 정리하고 이들의 공통된 한계를 지적한다. 전자의 논의가 성매매 여성을 "자발적 노동의지"(26)

1) 특히 성매매 및 여성주의 연구자 박정미(2020)의 서평 참고.

를 가진 '성노동자'로 개념화하면서 성매매 비범죄화와 성노동자 권리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후자는 부채를 매개로 한 억압적 폭력으로 성매매를 바라보고 예속관계에 놓인 '피해자' 여성들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양측 모두 성매매 산업을 '정상적인'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구별되는 특수한 경제영역으로 파악하고, 이 영역에서 벌어지는 실천들을 '인정'하거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정상적 경제질서에 편입시키는 일종의 도덕적 해결책을 추구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더 나아가 이 두 입장은 여전히 성매매를 대면적 계약관계나 예속관계 차원에서 이해함으로써, 금융화를 통해 "성매매 산업 내 경제적 관계의 형식과 이를 만들어내는 구성원들이 변화하고 있다"(30)는 점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저자는 성매매 산업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소득과 부채를 금융시장 전반의 "광범위한 부채, 신용, 화폐의 연결망"(64) 속에서 조망하는 '부채관계'라는 새로운 틀을 통해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성매매 여성들의 경험에 기반해 이 부채관계 개념을 좀 더 정교화하는 과정이 이어진다. 생애 전반에 걸쳐 (미국, 호주 등지로의 초국적 이동을 포함해) 다양한 업소와 지역을 이동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확장된 시공간 속에서 부채의 부침을 추적함으로써, 저자는 여성들의 부채관계가 전체 시장에 순환되는 신용/부채의 삶 속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밝힌다. 이 때 부채는 여성들을 단순히 감금할 뿐 아니라 이동하게 만드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작동에는 성매매 여성들의 신체가 가진 수익성과 부채 상환가능성 뿐 아니라 금융정책이나 경기상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된다. 따라서 "한 여성의 부채액은 단순한 족쇄가 아니며 여성을 통해 얻을 미래 수익, 다른 여성들이 진 부채액과의 균형, 차용증의 이전 가능성, 금리, 경제 상황 등과의 관련 속에서 조절되는 것"(107-108)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계산에 기반해 성매매 여성들에게 소위 '아가씨 대출'을

포함한 다양한 비공식적·공식적 대출상품이 제공됨으로써, 성매매 산업에 연루된 행위자들의 범주 역시 극적으로 확대된다. 이 연쇄적이고 광범위한 경제관계는, "포주나 구매자, 알선자와 같이 성매매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금융회사,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회사의 다양한 경영진, 직원과 투자자까지 포함한다."(135) 시공간적으로 확장되고 다수의 행위자를 포함하게 된 부채경제의 말단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업주나 일수업자 등과 대면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부채관계는 이러한 차원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추상적인' 금융세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

바로 이 연결관계를 분석하는 3부는 이 책의 백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는 자본금 한푼 없이 신용대출로만 강남에서 여러 개의 대형 룸살롱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조씨의 2011년 'J저축은행 마이킹 대출사건'을 중심으로, 성매매라는 '불법적인' 행위가 어떻게 '합법적인' 경제영역을 매개로 작동하는지 보여준다. 성매매 산업은 자본주의의 예외적·기형적 형태라기보다는 "금융자본주의의 황금어장"(162)으로 기능하며,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신체는 신용대출을 위한 '담보' 이자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는 금융기관의 투기 대상으로 구성된다. 금융기관들은 폭력적 추심에 무력하기에 채권회수가 용이한 성매매 여성들을 리스크가 적은 투자 상품으로 간주하고, 업주들에게 이를 담보로 합법적 대출을 해주거나 이들 여성들을 타겟으로 직접 대출을 행한다. 이렇게 여성들에게 행해진 대출은 '증권화(securitization)'되어 금융시장에 '채권'으로 판매되고, 결과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몸과 이들이 행하는 노동은 대출의 상환을 통해 투자자 및 채권자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부채경제의 생태계를 가장 하부에서 떠받치게" 된다(163).

또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이렇게 성매매 여성의 부채관계가 금융화되는 과정에서, 성매매 산업의 대형화 및 일종의 '합리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성매매 여성 개개인의 몸과 이들의 미래수익을 담보

로 대출을 받아 대형 성매매 업소를 창업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부채 및 이자 상환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여성들을 집결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성매매 기업화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불어난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의 회전율을 높이는 동시에 성매매 과정의 '표준화'가 이뤄지며, 성구매 남성들 역시 이러한 표준화된 절차 속에서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소비자로 재구성된다. 이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시간상품이 등장하는 한편, 성매매 업소들의 서열화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이 세분화되고 이 세분화된 서비스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거대한 구매자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성매매 산업 내 여성들 간의 경쟁과 서열화를 가속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 4부에서 저자는 다시금 성매매 여성들의 경험으로 돌아가, 이 확장된 부채관계를 성매매 여성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체험하고 있는가를 조명한다. 이 장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자유'가 될 것이다. 다양한 대출상품을 통해 비대면적·비인격적 형태의 부채관계로 편입된 성매매 여성들은, 과거처럼 포주에 대한 대면적이고 인격적인 예속관계에 시달리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확대된 신용에 기반해 "부채의 지불 약속을 유념하며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구체적인 액수의 돈을 만들어냄"(294)으로써 "자유롭게 자신의 재무 상태를 관리하는 주체"(361)로 거듭난다. 하지만 이들의 자유란 한편으로는 성매매 산업의 위계화된 구조 속에서 요구되는 여성성을 수행하는 '여성되기'의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성매매 산업을 중심으로 한 화폐 흐름의 연결망 안에 있어야 달성될 수 있는 '자유'"(361)이다. 따라서 이들은 전통적인 대면적 예속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남성적 질서와 금융화된 자본의 흐름에서 근본적으로 이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파산불가능한 주체"(384)로 구성된다.

결론적으로 성매매와 금융의 만남에 대한 저자의 촘촘한 분석이 보여주는 것은, 성매매 산업은 자본주의의 예외적 별종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화된 자본주의의 전형이자 핵심현장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최대 30조원으로 추산되는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화폐의 순환에 크게 기여한다는 의미에서뿐 아니라, 그 구체적 작동 형태에 있어서도 오늘날 성매매 경제와 금융은 놀랄만한 상동성과 긴밀한 상호관계를 가진다. 이는 기업화된 성매매 산업에서 여성의 몸을 대상으로 한 증권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 관리라는 금융화의 핵심 테크놀로지가 적극 활용된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여성의 외모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위계화된 성매매 업소들과 이를 '합리적'으로 탐색하는 성구매자의 모습에서 신용등급으로 위계화된 금융시장과 밸류에이션을 통해 신용의 배분을 결정하는 금융기관 및 채권자들의 실천을 떠올리고, 자신의 신체를 자산화하여 경쟁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꾀하면서 부채상환의 의무를 다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금융시장이 채무자 일반에게 요구하는 책무성의 "도덕적 형상"(281)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해, 저자가 제시하는 부채관계라는 개념을 통해 성매매 경제를 들여다 볼 때,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금융화된 자본주의의 매우 익숙하고도 '정상적인' 작동이다. 아마도 이것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에 대해 "지독하고도 유난한 한국 성산업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라기보다 금융화된 자본주의 경제가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들의 삶을 탈취하면서 확대재생산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내는 것에 주안점을 둔 연구"라고 정의하는 이유이고(김주희 2022), 이 책 전체에 걸쳐 성매매 여성들이 되돌려져야 할 "'정상적인' 경제적 장은 어디이며, 어떤 질서가 이런 정상성을 구축하는지"(57)에 대해 재차 질문하는 이유일 것이다.

3. 신용/부채의 수수께끼: 부채관계를 넘어서?

그런데 만약 성매매 경제와 금융화된 자본주의 간의 이러한 긴밀한

관계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저자가 제안하는 부채관계라는 개념을 성매매 여성을 둘러싼 상황 뿐 아니라 금융화된 자본주의 하에서 채무자가 처한 조건 일반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확장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가 자본가-노동자의 관계를 화폐 및 상품관계를 통해 분석했듯이, 부채관계는 오늘날 금융자본주의에서 보다 전통적인 자본가-노동자 관계를 대체하거나 이에 중첩되는 채권자-채무자의 관계 일반을 설명하는 분석틀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눈치빠른 독자는 이미 알아차렸겠지만, 부채를 '자유'의 기표이자 동시에 '종속'의 사슬로 바라보는 저자의 부채관계 개념은 마르셀 모스 이래로 인류학자들이 주목해 온 '증여/선물(gift)' 개념에 빚지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모스가 선물의 증여를 교환의 관점에서 조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사회적 '인정' 혹은 '신용(credit)'이면서 동시에 언젠가 되갚아야 할 '부채'가 된다.[2] 이러한 양가성으로 인해 선물은 상호인정과 호혜성을 통한 사회적 연합의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평등한 권력 관계와 상징적 폭력 그리고 신체적 예속을 생산하기도 한다.[3] 이러한 선물/부채에 내재한 양가성은 선물과 부채 각각의 이중적 의미에서도 드러난다. 모스의 유명한 명제처럼 선물은 종종 '독(poison)'으로 비유되며(Mauss 1997), 부채(빚)는 불평등한 예속적 지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를 가능케하는 돌봄과 상호의존 관계를 의미하기 위해서도 사용된다(Han

2) 이 서평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모스와 레비스트로스의 선물론에서 증여/교환됨으로써 신용/부채 관계를 생산하는 핵심 대상이 '여성'이었음을 고려하면(cf. 루빈 2015), 저자의 이러한 참조는 더욱 흥미롭게 느껴진다. 따라서 오늘날 금융화된 성매매 산업에서는 이중의 여성교환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으로 성매매를 통해 여성이 직접적으로 교환되는 동시에, 담보증권화된 여성의 신체와 미래수익이 금융시장에서 교환된다.

3) 매우 도식적으로 구분하자면, 증여가 가진 전자의 '긍정적' 차원을 좀 더 강조한 이들로 모스와 레비스트로스, 에나프를, 후자의 '어두운' 면에 주목한 이들로 니체, 바타이유, 들뢰즈, 부르디외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Schrift(1997)에 실린 일련의 논의들 참고.

2012).

저자의 부채관계 개념은 오늘날 금융화된 부채경제가 바로 이러한 신용/부채, 선물/독, 부채/유대라는 반복되는 양가성에 기반해 작동하며, 금융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사회운동 역시 종종 이러한 양가성의 두 축 사이에서 진동한다는 사실을 조명하는 데 유용하다. 사실 이 책의 곳곳에서 이러한 양가성과 그것이 야기하는 정치적 혼동들에 대한 저자의 비판적인 서술을 발견할 수 있다. 성매매 여성들이 부채를 "자신에 대한 신뢰"(125)로 해석하여 부채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나, 저소득층에 주어지는 약탈적 대출이 "금융의 민주화"(157)로 환영받았던 사태에 대한 지적이나, '정상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모기지 대출정책을 비판하며 "여성들에게도 신용을!"(395)이 여성운동의 구호로 외쳐졌던 역사에 대한 반성은, 바로 이러한 부채관계의 양가성이 생산하는 정치적 난맥상을 증언하는 것이다. 신용/부채에 관한 많은 인류학 연구들이 보여주듯이(예컨대, Peebles 2010), 이러한 혼돈은 비단 최근의 현상도, 한국에 국한된 일들도 아니다. 오늘날 글로벌한 금융시장 한쪽에서는 채무자들이 부채상환 거부운동을 벌이는 와중에, 다른 한 쪽에서는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대출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진다. 한쪽에서 빈곤층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마이크로크레딧의 확장이 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운동의 목표로 제시된다면, 다른 한 쪽에서는 이들에 대한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신용의 확장과 부채로의 포획이라는 이러한 이중적 과정을 통해 오늘날 금융은 개개인들, 특히 빈곤층을 금융자본주의의 흐름 속으로 적극 편입시킨다. '선물을 되갚을 의무'에 대한 모스의 강조가 오늘날 금융자본주의를 기저에서 뒷받침하는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는 부채의 도덕률"(391)과 기묘하게 겹쳐지면서, 신용/부채는 모스가 의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세워져 있는 인간반석의

하나"가 되었다(모스, 2002: 49).[4)]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자유와 이동을 가능케하는 동시에 종속과 포획의 효과도 낳는 이 부채관계의 양가적 조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문제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다. 금융화된 부채경제에 문제제기하고 채권자-채무자의 관계를 재정치화할 수 있는 실마리를 부채관계와 신용/부채에 대한 분석 속에서 찾을 수 있을까? 달리 말해, 소득과 부채의 대립구도를 '넘어서' 금융화된 부채관계라는 개념에 도달한 저자의 분석은, 이 부채관계가 생산하는 양가적 효과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저자의 입장은 다소 모호한 것처럼 보인다. 한편으로 저자는 "성매매 여성들의 노동이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에 의해 부과되는 노동은 아니"라고 선언하면서(67), 부채관계를 고전적 임금관계의 틀로 환원하려는 시도로부터 (정당하게) 거리를 둔다.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환원할 때 혹은 이 책의 서평에서 박정미가 제안하는 것처럼 "성판매여성이 생산하는 남성의 쾌락은 '사용가치', 여성의 서비스에 매겨지는 가격은 '교환가치', 여성에게 노동력의 대가로 지급되는 화폐는 '임금', 여성이 생산한 교환가치와 임금의 차액 및 이자는 '잉여가치'"로 개념화하게 되면(박정미 2020: 135), 우리는 좀 더 익숙한 틀로 이 영역에서 일어나는 착취를 정의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부채관계와 함께 작동하는 도덕경제와 성경제의 문제를 충분히 문제화하지 못하는 반쪽의 시도일 뿐이다. 이러한 접근은 금융화된 부채경제에서 작동하는 "내가 생산한 잉여가치에 대한 착취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이윤의 원천이 되는 수탈"(328)에 대한 좀 더 정치한 분석과 개념화를 유예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5)]

---

4) 데이비드 그레이버(Graeber 2011)는 이러한 상황을 "도덕적 혼동(moral confusion)"으로 명명하며, 모스가 제시한 증여의 문제의식이 계산(시장)과 폭력(국가)을 통해 부채로 변환된 것으로 파악한다.

5) 특히 비공식영역에 대한 인류학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마르크스가 분석한 상품관계 혹은 임금관계에 기반한 착취는 세계체계 차원에서는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외

하지만 동시에 저자가 부채관계에 내재한 자유의 가능성을 '오인'이나 '착시'로 명명할 때, 저자는 부채관계의 양가성과 그 내부적 전환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부채관계의 '외부'로 갑작스레 시선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저자는 "여성의 몸은 더욱 정교해진 논리에 의해 착취됨에도 불구하고, 포주와의 인격적 예속 관계가 표면상 사라졌다는 이유로 여성들은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자유를 확보하게 된 것으로 **오인**한다"(267; 강조는 인용자)고 말한다. 또한 "부채는 인격적 관계에서 개인을 예속시키는 역할을 넘어, 빈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낼 뿐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진 다양한 금융·신용 기법과 연계해 그 자체로 금융화된 자본축적의 동력이 되었다"(162; 강조는 인용자). 이 책의 4부에서 묘사되는 성매매 여성들의 경험처럼 이들에게 부과되는 부채관계가 "여성들을 더욱 교묘하고 다층적으로 결박시키는 효과"(345)를 낳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금융을 통해 주어지는 이동과 자유의 가능성이 일종의 '허위의식'으로 간단히 치부될 수 있을까? 마르크스의 착취 개념이 임금노동자의 이중적인 '자유', 즉 봉건적 예속 관계에서 해방되었으나 생산수단으로부터도 분리된 노동력 상품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만 전개될 수 있었듯이, 부채경제에서 작동하는 수탈 개념을 정교화하고 그 내부에서 저항의 가능성을 찾는 것 역시 신용/부채가 가져다주는 '자유'를 단순히 오인이나 착시가 아닌 오늘날 채무자들의 존재 조건으로 사고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사실 명쾌한 대안을 제안하지 못하는 이러한 저자의 모호함은, 이론적 한계보다는 오늘날 금융화된 부채경제에 도전하는 채무자 사회운동의 무력함을 반영하는 것일지 모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월가 점령시위 이후 부채는 사회운동의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

적이고 특수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보다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임금없는 삶"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수탈(expropriation) 혹은 추출(extraction)의 기술들에 대한 분석일지 모른다(데닝 2013).

상했으며,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채무자 파업과 부채 탕감 운동이 전개되어 왔고 현재도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부채로 인해 야기된 위기를 더 많은 신용/부채의 공급으로 대처해 온 포스트-금융위기 자본주의에서 이들 대부분은 탈정치화된 일회성 캠페인으로 귀결되거나, 한국에서 전개됐던 부채탕감 운동의 예처럼 저자가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금융적 복지활동"(74)의 문제틀을 넘어서지 못했다. 물론 이는 그 자체로 채무자 운동의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부채관계에 기반한 수탈의 매커니즘을 밝히고 금융화된 부채경제 자체를 어떻게 사회운동의 장으로 재구성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심도깊은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6] 이 책의 논의와 연결시키자면 성매매를 둘러싼 부채관계의 양가성에 대한 지적을 넘어, 성매매 여성들이 '성노동자'나 '성매매 피해자'를 넘어 보편적 부채관계의 '채무자'로서 다른 빚진자들과 함께 부채경제에 도전하는 사회운동이 어떻게 가능할지, 그러한 정치적 주체화가 가능 혹은 불가능하다면 그 가능성/불가능성의 조건은 무엇인지를 묻는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4. 나가며: 여성주의와 금융자본주의 비판의 만남을 위하여

물론 이는 별도의 실천과 연구가 필요한 질문들로, 저자에게 이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것이다. 저자의 분석은 이러한 질문들에 직접 답하지는 않지만, 부채경제에 문제제기할 가능성의 단초가 어

6)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기존의 채무자 운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채무자 운동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려는 시도로는, Bjerg(2015)와 Cavallero & Gago(2021)를 참고할 것. 이론적 차원에서 선물의 상호성/호혜성(reciprocity)이라는 전제에 문제제기함으로써, 신용/부채의 양가성을 벗어나려는 시도로는 이승철(2019) 참고.

디에 놓여있는가를 정확히 보여준다. 이중의 '여성교환' 경제—여성이 교환되는 성매매 경제와 여성의 미래수익이 담보증권으로 교환되는 금융화된 성매매 산업—에 대한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첫째, 이 체계 전체는 "부채가 종국에는 상환되어야 하고 상환될 것이라는 집단적 믿음"(186)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둘째, 이 체계를 순환시키고 재생산하며 종국에는 이 모든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를 떠안는 것은 "여성들과 여성의 몸"(186)이라는 것이다. 빈곤 여성·성매매 여성들의 신체가 이윤의 최종적 원천으로서 기저에서 체계 전체를 떠받치는 부채경제의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여성들의 증권화된 몸이 금융의 파생상품(derivative)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화된 부채경제 자체가 여성들의 몸의 파생물이 된다.

이 책은 오늘날 금융화된 부채경제가 이같이 근본적으로 젠더화된 구조 위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제사에 인용한 들뢰즈의 '빚진 인간'에 대한 유명한 선언에서 '인간(man)'을 '여성'으로 고쳐 쓴다. 그리고 이러한 수정은 근본적이고 결정적이다. 책 전체에 걸쳐 반복 강조되는 저자의 주장처럼 "반성매매 운동은 동시에 경제 체제에도 도전하는 다중 쟁점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61)면, 금융화된 부채경제에 대한 도전 역시 이 젠더화된 구조에 대한 분석과 고민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한 서평자의 말처럼 김주희의 책이 "성산업과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논쟁의 시작점"이자 "이 시대 여성문제의 재구성을 원하는 이들의 필독서"라면(추주희 2020), 여기에 덧붙여 여성주의와 금융자본주의 비판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이들, 더 나아가 금융화된 부채경제의 재구성을 원하는 이들 모두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김주희, 2020, 『레이디 크레딧: 성매매, 금융의 얼굴을 하다』, 서울: 현실문화.

김주희, 2022, "금융화 시대 여성의 의미도 바뀌고 있다... '자유'를 넘어 '보편'으로", 『교수신문』(2022년 4월 6일자)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86893

데닝, 마이클, 2013, "임금없는 삶", 『뉴레프트리뷰』 4호: 132~157.

루빈, 게일, 2015, "여성교환", 『일탈』, 임옥희 외 역, 서울: 현실문화.

모스, 마르셀, 2002, 『증여론』, 이상률 역, 서울: 한길사.

박정미, 2020, "여성이 신용을 만났을 때", 『페미니즘 연구』 20(2): 129~137.

이승철, 2019, "불가능한 증여, 기생의 사회: 자크 데리다와 미셸 세르의 상호성 비판", 『비교문화연구』 25(2): 191~229.

추주희, 2020, "21세기 금융화된 성산업과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논쟁의 시작점", 『여/성이론』 43호: 251~259.

Bjerg, Ole, 2015, "Is There Life after Debt? Revolution in the Age of Financial Capitalism", *Finance and Society* 1(1): 81~89.

Cavallero, Lucí & Gago, Verónica, 2021, *A Feminist Reading of Debt*, London: Pluto.

Deleuze, Gilles, "Postscript on the Societies of Control", *October* 59: 3~7.

Graeber, David, 2011, *Debt: The First 5,000 Years*, New York: Melville House Publishing.

Han, Clara, 2012, *Life in Debt: Times of Care and Violence in Neoliberal Chil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auss, Marcel, 1997, "Gift, Gift" in Alan Schrift (ed.), *The Logic of the Gift*, New York: Routledge.

Peebles, Gustav, 2010, "The Anthropology of Credit and Debt",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9: 225~240.

Schrift, Alan (ed.), 1997, *The Logic of the Gift*, New York: Routledge.